

# 임실군, 징검다리 연휴 북새통

### 5월 초 옥정호·치즈테마파크·팻스타 등 주요 관광지 '관광객 인산인해' 이뤄

임실군이 5월초 징검다리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관광 특수'를 제대로 누렸다.

군에 따르면 노동절인 5월 1일부터 어린이날인 5일까지 이어진 연휴 기간 동안, 평일이었던 4일에도 연차를 활용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지역 전체가 활기로 가득했다.

실제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2026 임실N팻스타'에 8만 7천여명, '임실치즈테마파크'에 2만 5천여명, '옥정호출렁다리 및 봉어섬 생태공원'에 5만 6천여명이 방문하는 등 총 16만 8천여명의 관광객이 임실을 찾으며 임실 구석구석이 연휴 내내 북새통을 이뤘다.

임실의 대표 관광 랜드마크인 임실 치즈테마파크는 유람선 건축물과 형형색색 봄꽃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인기로 힘입어 연휴 기간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음식점과 체험시설, 농산물 판매수익은 총 2억7천만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했다.



임실군이 5월초 징검다리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관광 특수'를 제대로 누렸다.

전국적인 관광 명소 자리잡은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 역시 산촌객들로 붐볐다.

관광객 증가 효과는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로 이어졌다. 옥정호 권역에서는 임실N치즈 및 유제품 매출액 1억 1천만원, 임실엔치즈하우스 옥정호점 카페 매출 1천 4백만원을 기록했으며, 지역 음식점들도 밀려드는 손님들로 특수를 누렸다.

아울러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6 임실N팻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

인 8만 7천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임실군이 대한민국 대표 반려동물 문화관광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군은 각각의 관광지를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 시너지를 극대화한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였고 '천만 관광 도시 임실'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임실=전충영 기자

# 부모·아이 행복한 세상 만든다

###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Family Safety' 공모사업 선정

남원시 관계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보육지원사업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한국보육진흥원과 한국복지자동차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6년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한 'Family Safety'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138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별 부모 유형과 특성에 맞춘 가족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친화 문화 조성과 긍정적인 양육 가치 확산을 목표로 추진, 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 친화 환경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센터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약 1천만 원을 확보, 현재 남원시 및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오

는 10월까지 다양한 가족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예비부모(임신 준비 및 출산 예정)를 위한 소모임 △영유아 자녀 부모 소모임 △아빠-자녀 놀이 프로그램 △우리동네 팝업놀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숲 체험, 목공 체험, 생태교육, 자연놀이 프로그램과 함께 폐장난감을 활용한 키템 만들기 체험부스 등을 '우리동네 팝업놀이터'와 연계 추진,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남원시가 2026년 상반기 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3억 원 △남원 농업근로자 기숙사(동부권) 건립사업 3억 원 △남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3억 원 △세전배수장 긴급 기능 보강사업 3억 원 △남원중앙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개선사업 3억 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은 관광투자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을 조성해 지역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 콘텐츠를 다변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동부권(인월·산내)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농업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업 노동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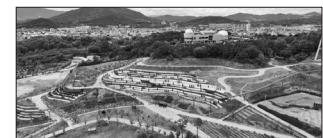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합과우 지방정원' 임시 개방한다

남원시가 노암동(산10번지 일원)에 조성한 '합과우 지방정원'을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선제적으로 임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합과우 지방정원은 주제 정원인 산책로, 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결빛나무, 에메랄드그린, 홍매화 등 다채로운 수목을 식재해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임시 개장 기간에는 야간에도 정원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운영해 시민들이 저녁 시



간대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임시 개장을 통해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 이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식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 설랜드·서울대 교원연수 '뜨거운 관심'

### 1기 연수접수 시작 3분 만에 마감

순창군의 대표 힐링 공간인 설랜드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운영하는 전국 교원 대상 '2026 미리 만나면 더 좋은 인생설계 직무연수'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연수는 앞으로 10년 이내 퇴직을 앞둔 교원들이 은퇴 이후 삶을 미리 준비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진행된 1기 연수를 시작으로 오는 6월



과 7월,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회차별 60명씩 총 240명의 교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기 연수는 접수 시작 3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얻으며 현장 교원들의 뜨거운 반응을 실감

케 했다.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강의와 체험, 휴식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됐다. 서울대학교 김치현 교수의 '허리 노화의 이해와 예방', 조비룡 교수의 '건강백세 전략' 등은 퇴 이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특강이 진행되며, 강천산 트레킹과 족욕 체험 등 순창의 자연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열려

순창군은 지난 12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조광희 순창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 4월말 기준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17개 부서장이 참석해, 2026년 합동평가 세부지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서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군은 이를 통해 지표별 대응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연말까지 안정적인 실적 달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순창군 대상 평가지표는 정량지표 67개, 정성지표 7개 등 총 74개 지표로, 군은 정량지표의 99% 수준인 64개 지표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체계적인 실적 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해 합동평가에서 괄



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정량지표 달성률 부문에서 미달성지표가 1개에 그쳐, 도내 군부 1위, 전체 시군 가운데 2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행정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 운영

임실군은 군민들의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도서 상호대차 및 타관반납 서비스 확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원하는 책이 가까운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의 자료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이다.

임실군은 기존 주 1회(목) 운영하던 방식에서 주 2회(화·목)로 확대하여 도서 제공 속도를 높이고, 오수반려누리로 이전하여 새롭게 개관한 스마트도서관을 상호대차 서비스 대상에 추가하여 운영된다.

임실군은 군립도서관(2개관), 공립작은도서관(4개관), 스마트도서관(1개관) 등 총 7개관에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실=전충영 기자

### 남원소방서, 투·개표소 대상 화재안전조사 실시

남원소방서는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선거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투·개표소의 잠재적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화재안전조사단(1개반 3명)을 편성해 점검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1개소를 비롯해 관내 투표소 및 개표소 39개소 등 총 40개소로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점검 △관계인 안전 교육 등 맞춤형 안전 교육을 진행,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며, 경미한 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일 전까지 모든 보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단 한 건의 화재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